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 전망

| 요약 |

-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하겠지만, 상반기에 비해 그 감소 폭이 축소
 - 최종 내구소비재로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가전, 소비재 성격이 강한 섬유, 단가의 영향을 받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경쟁력 약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하반기에 감소 전망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 있는 정보통신기기 및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가 예상
- 12대 주력산업의 생산은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경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차전지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의 생산 감소율이 크게 개선
 - 하반기 생산 감소율이 개선되는 것은 수출 상황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

2020년 하반기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산업군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 주: 1) 전망 :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금액 기준

1. 2020년 하반기 주요 여건변화와 산업별 영향

■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수요 침체, 경쟁 심화, 단가인하 지속

- (코로나의 영향과 업종별 세계수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수혜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세계 경제 성장을 하락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투자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
 - 우리 주요 수출시장의 하반기 시장 상황을 보면, 업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등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상반기에 이어 양호
 -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수요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경쟁 여건의 변화) 중국 등 경쟁국의 공급능력 증대에 따른 세계적 공급 과잉 상황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
 - 기존 투자계획 및 공장 가동이 지연되었지만 수요 부족이 더 크게 작용하여 경쟁은 심화
- (제품 단가 변화) 제품의 글로벌 단가는 수출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영향이 큼.
 - 철강의 경우 원료가격 인상 등이 예상되지만 과잉공급 및 재고 물량 증가가 단가 인하요인으로 작용
 -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유는 하반기에도 전년대비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이어서 정유의 단가도 큰 폭 하락 예상
- (해외생산 전망) 우리 소재부품 및 자본재의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요 부족 등으로 하반기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반도체의 해외공장은 안정적인 가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선, 가전, 2차 전지 등은 하반기에 생산이 안정화될 전망
 -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은 일부 지역을 제외 하면 하반기에도 해외생산이 감소할 전망

■ 업종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상반기에 비해 국내 여건 개선 기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 회복이 하반기에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요 여건이 좋지 않겠지만, 상반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고, 국산 제품의 경쟁력도 향상될 전망
- (국내 수요 여건) 자동차, 섬유, 가전 등은 상반기에 실시되었던 소비 진작책이 축소되어 회복이 부진하고, 관련 소재 및 부품산업 수요도 다소 위축되는 반면, 정보통신기기, SSD용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내 수요는 증가

- 가전산업에는 국내 성장 둔화와 소비지출 감소가 내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정보통신기기 산업에는 하반기에 5G 확산이 본격화되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기대되나 단말 보조금 축소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부정적
- (국내 생산능력) 소재부품 조달망의 문제보다 해외이전 등의 요인으로 일부 산업에서 생산능력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자동차는 외자계 업체의 생산모델 축소 등으로 생산능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일반기계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특성상 주 52시간 노동이 문제로 작용
- (소재부품 조달) 코로나19로 초기에 일부 산업에서 공급단절 사태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정상화되었고, 현재로서는 운송 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업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
- (국산제품 경쟁력 변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산제품의 경쟁력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자동차는 고급브랜드 신차, 향상된 주행거리의 전기차 등을 출시하고, 철강은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가 예상되며, 석유화학은 국산제품의 원가경쟁력이 강화
 - 가전은 스마트홈 신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정보통신기기는 신제품 출시 및 SSD 개발역량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차전지는 공급 가능 품목의 다양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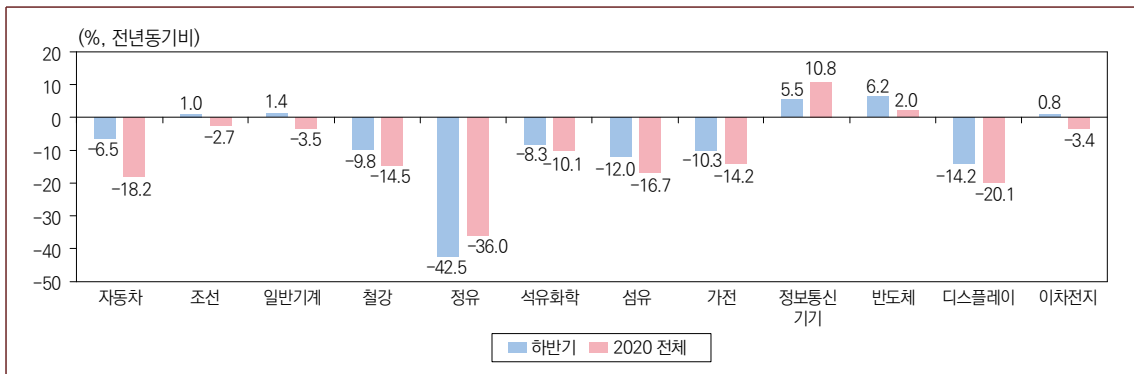
2. 2020년 하반기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 12대 산업,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6.1% 감소

-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겠지만, 상반기의 -13.5%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축소
 - 최종 내구소비재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자동차, 가전), 소비재 성격이 강한 업종(섬유), 단가에 영향을 받는 업종(철강, 정유, 석유화학), 경쟁력 약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업종(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 있는 정보통신기기 및 반도체는 하반기에 수출 증가가 예상
- (기계산업군) 조선과 일반기계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자동차의 감소세가 줄어 하반기 수출은 2.4% 감소하고, 2020년 전체로는 10.3% 감소 전망
 - 하반기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침체와 외자계 업체의 수출물량 배정 조정으로 6.5%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8.2% 감소
 - 조선 수출은 코로나19로 인도 연기 등이 우려되지만, 고가 선박 인도 등으로 하반기에 1.0%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2.7% 감소
 - 조선은 당장의 수출보다 수주가 중요한데, 하반기 이후 해상물동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선복량이 충분하고, 선박금융 시장도 개선되기 어려워 신규발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수출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및 수요업종의 부진이 예상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1.4%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3.5% 감소
- (소재산업군) 소재산업군 수출은 하반기에도 주로 단가 인하의 영향으로 20.2% 감소하고, 연간으로도 20.1% 감소
 - 철강은 수출단가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승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물량도 경기 침체 지속으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하반기 수출은 9.8%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4.5% 감소
 - 정유는 유가 하락 등으로 단가 인하가 더 커져 수출물량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수출금액은 하반기에 42.5%나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36.0% 감소
 - 석유화학은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와 더불어 수출단가가 하락하여 하반기 수출금액은 8.3%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0.1% 감소
 - 섬유는 글로벌 수요절벽, 이에 따른 경쟁 심화와 수출단가 약세 등으로 하반기에도 수출이 12.0%나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6.7% 감소
- (IT산업군) 코로나19로 수혜를 보는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은 수출이 증가하지만,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등은 감소하여 하반기 수출은 2.2%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0.7% 감소
 - 가전의 하반기 수출은 글로벌 수요 위축과 해외생산 증대로 10.3%나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4.2% 감소
 - 정보통신기기는 하반기에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SSD 수요에 힘입어 5.5%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0.8% 증가
 - 디스플레이 수출은 세계수요 둔화와 중국 생산 확대 등으로 하반기에도 14.2%의 감소가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20.1% 감소
 - 이차전지는 경기 부진, 해외생산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전기차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은 0.8%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3.4% 감소할 전망

〈그림 1〉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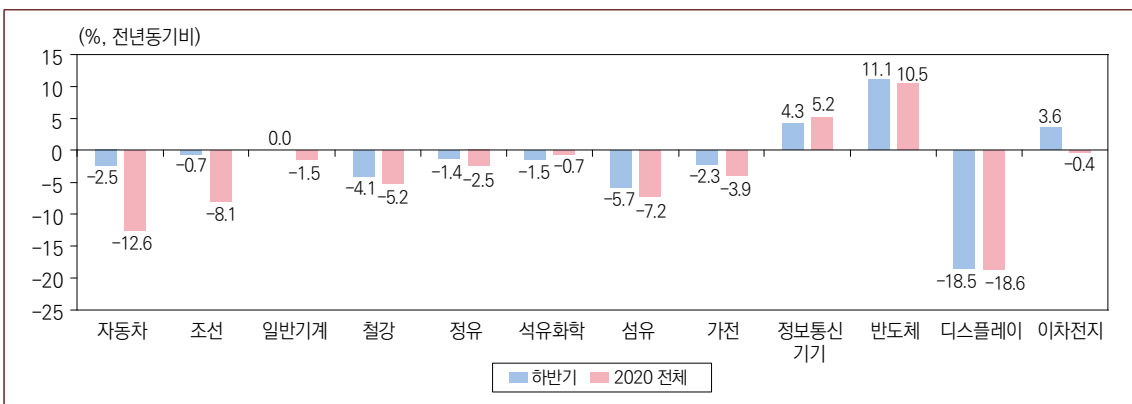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완성차(MTI 741)와 자동차부품(MTI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생산 :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생산이 증가하거나 감소세 크게 둔화**

-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차 전지는 증가세로 전환되며,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여타 산업들의 생산 감소율은 크게 개선
 - 생산 감소율 개선은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이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기인
- (기계산업군) 하반기에 조선과 일반기계의 생산은 작년 하반기 수준을 회복하고, 자동차도 생산 감소율이 크게 낮아져 전반적으로 기계산업군의 상황이 크게 개선
 - 하반기 자동차 생산은 외자계 생산 조정과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감소하겠지만 상반기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2.5% 감소에 그치고, 연간으로는 상반기의 침체로 12.6% 감소
 - 하반기 조선 생산은 코로나19로 일부 인도 연기가 있겠지만, 수주 회복기 물량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0.7% 감소하는 데 그치고, 연간으로는 8.1% 감소
 - 하반기 일반기계 생산은 제조업의 내수 및 수출 침체가 악영향을 미치지만, 기주문 물량과 더불어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작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고, 연간으로는 1.5% 감소
- (소재산업군) 하반기에 수출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주로 단가 인하에 기인하여 생산량 감소는 다소 제한적
 - 철강은 내수 판매 및 수출 감소로 인해 하반기 철강 생산량도 4.1%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5.2% 감소
 - 정유는 수송용 내수 감소에 기인하여 하반기 생산량도 1.4%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2.5% 감소
 - 석유화학도 수요 부진이 이어져 하반기 생산량이 1.5% 감소하고, 연간으로 0.7% 감소
 - 섬유는 의류와 관련 소재 등으로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 성격이 존재하여 하반기 생산금액이 5.7%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7.2% 감소

〈그림 2〉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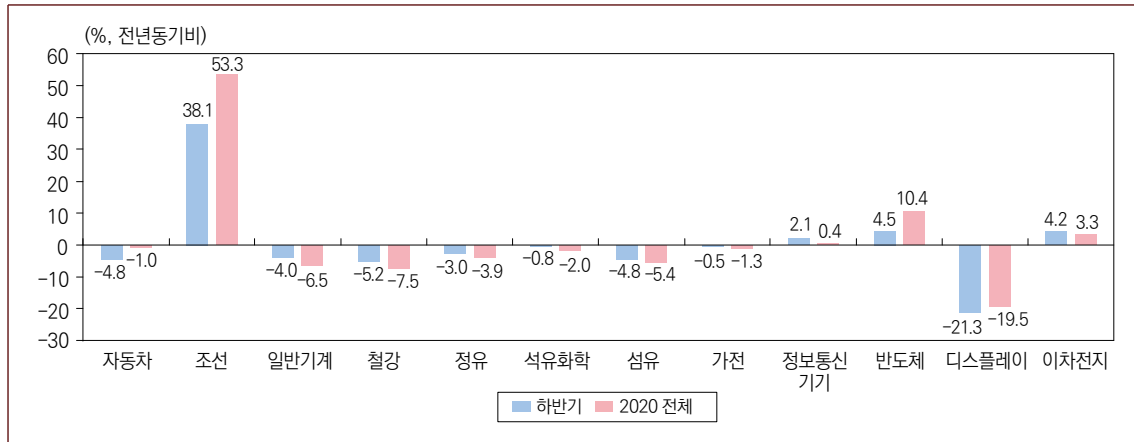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IT산업군) 소비재 성격이 강한 가전,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부진한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증가
 - 하반기 가전 생산은 해외생산 확대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 등으로 2.3% 감소하고, 연간으로 3.9% 감소
 -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SSD와 더불어 5G 확산에 따른 기기 수요 증대 등으로 생산이 4.3% 증가하고, 연간으로 5.2% 증가
 - 하반기 반도체 생산은 SSD용 내수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세공정 전환 등도 순조로워 11.1%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으로도 10.5% 성장이 예상
 - 하반기 디스플레이 생산은 해외생산의 증가, 경쟁의 심화, 패널가의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비 18.5% 감소하고, 연간으로도 18.6% 감소
 - 하반기 이차전지 생산은 해외 전기자동차의 수요뿐만 아니라 내수 전기차도 확대되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고, 연간으로 0.4% 감소

■ **내수 : 자동차 등을 제외하면 상반기보다 감소세 둔화**

- 상반기에 성장세를 기록했던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내수는 하반기에 감소세로 전환되거나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지만, 대부분 산업에서는 감소율이 개선될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조선도 증가율이 낮아지지만, 기계산업의 감소율은 하반기에 다소 개선
 - 하반기 자동차 내수는 대기수요 기실현, 경기 부진 지속, 내수 진작책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4.8%나 감소하고, 연간 1.0% 감소
 - 하반기 조선 내수는 해운산업 재건에 따른 발주 선박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에 이어 38.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53.3% 증가
 - 하반기 일반기계 내수는 국내 수요산업의 위축이 지속되어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하고, 연간으로 6.5% 감소
- (소재산업군) 하반기 소재산업은 전체적으로 내수가 감소하지만, 상반기에 비하면 감소율이 낮아진 수준
 - 하반기 철강 내수는 상반기보다 개선되지만, 수요산업 생산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 연간으로 7.5% 감소
 - 하반기 정유 내수는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0%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3.9% 감소
 - 하반기 석유화학 내수는 수요산업 전반의 부진이 악재로 작용하지만, 가전, 통신기기 등 IT산업의 수요 회복이나 경기 부양책의 기대로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0.8% 감소하는 데 그치고, 연간으로는 2.0% 감소
 - 하반기 섬유 내수는 민간소비, 국내 수요산업의 활동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하고, 연간으로 5.4% 감소

〈그림 3〉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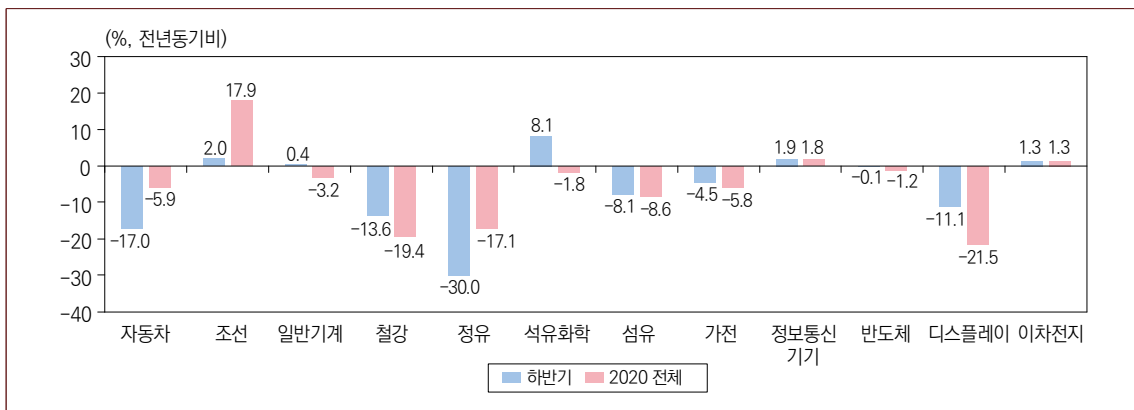
- (IT산업군) 반도체의 내수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가전,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내수가 개선
 - 하반기 가전 내수는 경기부진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신가전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0.5%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3% 감소
 -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 수요 확대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하고, 연간으로 0.4% 증가 전망
 - 하반기 반도체 내수는 SSD 수출 증가, 5G 및 신산업 생산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0.4% 증가
 - 하반기 디스플레이 내수는 자동차용 등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21.3%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9.5% 감소
 - 하반기 이차전지 내수는 전기자동차의 내수 및 수출 확대에 4.2%만큼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3.3% 증가 예상

■ 수입 : 12대 산업, 내수 부진, 단가 인하 등으로 하반기 5.9% 감소

- 하반기에 자동차, 철강, 정유, 디스플레이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조선, 석유화학 등의 수입은 증가할 전망
 - 이러한 업종별 수입액 증감에서의 차이는 내수 상황이나 제품 단가 등에 의해 발생
- (기계산업군) 하반기 기계산업군의 수입은 자동차의 수입 감소에 의해 전년동기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수입은 수입단가 상승에도 공급물량 부족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의 여파, 국내 부품 수요 감소 등으로 하반기에 17.0%나 큰 폭으로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5.9% 감소
 - 하반기 조선 수입은 중고선 도입 및 중국 건조 선박의 수입 증가로 2.0%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7.9% 증가

- 하반기 일반기계 수입은 첨단제조장비 핵심부품 수입 수요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내수 경기 위축으로 전년동기비 0.4% 증가하는 데 그치고, 연간으로는 3.2% 감소
- (소재산업군) 석유화학 수입은 증가하지만, 철강, 정유, 섬유 등의 감소로 하반기에 12.8%, 연간으로 12.9% 감소
 - 하반기 철강 수입은 높은 재고 수준과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6% 감소하고, 연간으로 19.4% 감소
 - 하반기 정유 수입은 수입물량이 늘어나지만,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0.0%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7.1% 감소
 - 하반기 석유화학 수입은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여 전년동기비 8.1% 증가, 연간으로 1.8% 감소
 - 하반기 섬유 수입은 수요 부진으로 해외 의류의 역수입이나 중저가 소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비 8.1% 감소하고, 연간으로 8.6% 감소
- (IT산업군) IT산업 수입은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하반기에 0.3% 감소하는 데 그치고, 연간으로 1.7% 감소
 - 하반기 가전 수입은 코로나19로 해외 공급망 차질, 해외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4.5% 감소하고, 연간으로 5.8% 감소
 -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5G망 구축, 외산 신제품 출시, 한국기업의 해외공장 생산제품 역수입 등으로 하반기에 1.9%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1.8% 증가
 - 하반기 반도체 수입은 제조 공정상 수입이 증가하지만, 자동차용 등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여 0.1% 감소에 그치고, 연간으로 1.2% 감소
 - 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수입은 국내 수요의 위축으로 11.1% 감소하고, 연간으로 21.5% 감소
 - 이차전지의 경우 하반기에 중국 제품을 장착한 무선 가전이 증가하면서 1.3% 증가하고, 연간으로도 1.3% 증가

〈그림 4〉 2020년 하반기 및 전체 주요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완성차(MTI 741)와 자동차부품(MTI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3. 정책적 시사점

- 우리 기업은 외부적 충격에 대해 빠른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생산기반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 회복기에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
 - *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세계 생산 중 현대기아 비중 2007(5.4%) → 2011(8.2%))
-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업기반 유지가 중요한 데 하반기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 내수, 수출 등과 관련한 기존 지원의 유지 및 확대 필요
- 비상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탄력적 근로시간, 배치전환 등)을 확보할 필요
 - 동시에 위기 종료 후 수요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
- 포스트 코로나 대응은 디지털 인프라 투자 선점 경쟁으로서 중국의 신형 인프라정책을 적극 참고할 필요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빠른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사회에 부응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 기업도 디지털 뉴딜에 부응하는 사업 및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중소기업의 디지털·스마트 혁신역량 강화로 스마트홈, 스마트가전 등 신시장의 성장에 대비
 -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제조 생산방식의 혁신 지원을 강화
- 코로나19로 인해 재편되고 있는 GVC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최적의 공급망 및 생산기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정책을 추진
 - 국내에는 기술개발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제조하기 좋은 환경, 특히 제조방식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 추진

〈표 1〉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64,005 (-1.3)	32,982 (3.5)	32,595 (1.4)	65,577 (2.5)	23,143 (-29.8)	30,492 (-6.5)	53,635 (-18.2)
조선	21,275 (-49.6)	11,042 (2.1)	9,117 (-12.9)	20,159 (-5.2)	10,411 (-5.7)	9,212 (1.0)	19,623 (-2.7)
일반기계	53,557 (10.2)	26,386 (0.5)	26,171 (-4.1)	52,557 (-1.9)	24,180 (-8.4)	26,550 (1.4)	50,730 (-3.5)
철강	33,973 (-0.7)	15,932 (-5.1)	15,161 (-11.8)	31,093 (-8.5)	12,921 (-18.9)	13,675 (-9.8)	26,596 (-14.5)
정유	46,349 (32.3)	20,018 (-9.0)	20,672 (-15.1)	40,690 (-12.2)	14,145 (-29.3)	11,878 (-42.5)	26,023 (-36.0)
석유화학	49,985 (11.9)	21,688 (-13.1)	20,890 (-16.5)	42,578 (-14.8)	19,113 (-11.9)	19,163 (-8.3)	38,276 (-10.1)
섬유	14,080 (2.5)	6,617 (-7.8)	6,342 (-8.2)	12,959 (-8.0)	5,213 (-21.2)	5,580 (-12.0)	10,793 (-16.7)
가전	7,216 (-18.3)	3,535 (-4.3)	3,422 (-2.9)	6,957 (-3.6)	2,902 (-17.9)	3,069 (-10.3)	5,972 (-14.2)
정보통신기기	28,428 (-10.8)	10,567 (-28.0)	12,577 (-8.6)	23,144 (-18.6)	12,369 (17.1)	13,272 (5.5)	25,641 (10.8)
반도체	126,726 (29.4)	47,476 (-22.5)	46,481 (-29.0)	93,957 (-25.9)	46,470 (-2.1)	49,348 (6.2)	95,818 (2.0)
디스플레이	24,679 (-9.9)	9,716 (-9.8)	10,777 (-7.4)	20,493 (-8.5)	7,133 (-26.6)	9,243 (-14.2)	16,376 (-20.1)
이차전지	7,224 (21.4)	3,686 (9.0)	3,731 (-2.9)	7,418 (2.7)	3,404 (-7.7)	3,761 (0.8)	7,165 (-3.4)
12대 합계	477,498 (4.9) 〈78.9〉	209,645 (-10.4) 〈77.3〉	207,936 (-14.6) 〈76.7〉	417,582 (-12.5) 〈77.0〉	181,404 (-13.5) 〈74.9〉	195,243 (-6.1) 〈77.8〉	376,648 (-9.8) 〈76.4〉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2대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표 2〉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4,029 (-2.1)	2,028 (1.2)	1,922 (-5.0)	3,951 (-1.9)	1,577 (-22.3)	1,860 (-3.2)	3,437 (-13.0)
조선 (만 CGT)	772 (-26.9)	512 (14.8)	442 (35.2)	954 (23.6)	438 (-14.5)	439 (-0.7)	877 (-8.1)
일반기계 (십억 원)	123,319 (2.1)	60,732 (-1.6)	60,263 (-2.2)	120,995 (-1.9)	58,890 (-3.0)	60,250 (0.0)	119,140 (-1.5)
철강 (천 톤)	75,211 (-2.4)	37,388 (-1.7)	36,172 (-2.7)	73,560 (-2.2)	35,043 (-6.3)	34,689 (-4.1)	69,732 (-5.2)
정유 (십만 배럴)	12,589 (2.4)	6,245 (1.4)	6,255 (-2.7)	12,501 (-0.7)	6,022 (-3.6)	6,166 (-1.4)	12,189 (-2.5)

(계속)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석유화학 (백만 톤)	21,553 (-1.9)	10,770 (-0.4)	10,767 (0.3)	21,537 (-0.1)	10,766 (0.0)	10,611 (-1.5)	21,377 (-0.7)
섬유 (십억 원)	74,128 (-0.2)	36,250 (-1.9)	35,802 (-3.7)	72,052 (-2.8)	33,120 (-8.6)	33,744 (-5.7)	66,864 (-7.2)
가전 (십억 원)	27,574 (-4.1)	13,230 (-0.9)	13,599 (-4.4)	26,829 (-2.7)	12,492 (-5.6)	13,291 (-2.3)	25,783 (-3.9)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3,259 (-5.1)	23,553 (-14.4)	24,306 (-5.6)	47,859 (-10.1)	24,992 (6.1)	25,342 (4.3)	50,334 (5.2)
반도체 (십억 원)	140,962 (26.4)	56,001 (-19.2)	56,225 (-21.5)	112,256 (-20.4)	61,622 (10.0)	62,463 (11.1)	124,085 (10.5)
디스플레이 (십억 원)	60,727 (10.4)	25,024 (-11.5)	27,268 (-15.9)	52,292 (-13.9)	20,344 (-18.7)	22,223 (-18.5)	42,568 (-18.6)
이차전지 (십억 원)	7,896 (32.7)	4,551 (7.7)	4,852 (8.5)	9,403 (8.1)	4,339 (-4.7)	5,026 (3.6)	9,364 (-0.4)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표 3〉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1,804 (0.6)	859 (-4.3)	904 (-0.4)	1,762 (-2.3)	885 (3.1)	840 (-7.0)	1,725 (-2.1)
조선 (만 CGT)	217 (-26.7)	131 (13.9)	126 (23.5)	257 (18.4)	220 (67.9)	174 (38.1)	394 (53.3)
일반기계 (십억 원)	97,175 (-4.9)	49,332 (-0.9)	47,555 (-0.8)	96,887 (-0.8)	45,921 (-8.9)	45,641 (-4.0)	91,562 (-6.5)
철강 (천 톤)	53,710 (-4.6)	27,644 (3.2)	25,579 (-5.0)	53,223 (-0.9)	24,990 (-9.6)	24,242 (-5.2)	49,232 (-7.5)
정유 (십만 배럴)	9,348 (-0.6)	4,576 (-2.4)	4,753 (2.0)	9,329 (-0.2)	4,350 (-4.9)	4,611 (-3.0)	8,961 (-3.9)
석유화학 (백만 톤)	11,199 (-3.7)	5,595 (-1.7)	5,388 (-2.2)	10,984 (-1.9)	5,421 (-3.1)	5,345 (-0.8)	10,766 (-2.0)
섬유 (십억 원)	77,494 (2.1)	37,564 (0.0)	39,272 (-1.7)	76,836 (-0.8)	35,343 (-5.9)	37,371 (-4.8)	72,714 (-5.4)
가전 (십억 원)	27,466 (4.7)	13,438 (0.8)	13,565 (-4.1)	27,003 (-1.7)	13,167 (-2.0)	13,497 (-0.5)	26,664 (-1.3)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1,110 (0.4)	25,977 (1.0)	25,849 (1.8)	51,826 (1.4)	25,616 (-1.4)	26,402 (2.1)	52,018 (0.4)
반도체 (십억 원)	50,796 (7.2)	28,609 (13.7)	29,891 (16.6)	58,499 (15.2)	33,360 (16.6)	31,240 (4.5)	64,600 (10.4)
디스플레이 (십억 원)	38,819 (31.3)	16,894 (-11.2)	17,008 (-15.5)	33,902 (-12.7)	13,895 (-17.8)	13,385 (-21.3)	27,280 (-19.5)
이차전지 (십억 원)	1,259 (47.8)	1,184 (3.4)	1,391 (11.8)	2,573 (7.5)	1,211 (2.3)	1,449 (4.2)	2,658 (3.3)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표 4〉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17,516 (6.3)	8,025 (-12.4)	9,300 (11.3)	17,326 (-1.1)	8,578 (6.9)	7,717 (-17.0)	16,295 (-5.9)
조선	2,636 (-6.9)	1,229 (-3.2)	1,151 (-15.9)	2,380 (-9.7)	1,631 (32.7)	1,174 (2.0)	2,805 (17.9)
일반기계	29,796 (-0.8)	14,437 (-5.0)	14,324 (1.9)	28,761 (3.5)	13,462 (-6.8)	14,386 (0.4)	27,848 (-3.2)
철강	21,849 (-0.2)	11,471 (4.1)	10,177 (-6.0)	21,648 (-0.9)	8,649 (-24.6)	8,793 (-13.6)	17,442 (-19.4)
정유	21,443 (41.8)	8,264 (-17.1)	9,275 (-19.2)	17,539 (-18.2)	8,041 (-2.7)	6,491 (-30.0)	14,532 (-17.1)
석유화학	14,534 (5.5)	6,699 (-5.4)	5,977 (-19.8)	12,676 (-12.8)	5,984 (-10.7)	6,458 (8.1)	12,442 (-1.8)
섬유	17,141 (12.8)	7,771 (0.8)	9,359 (-0.8)	17,130 (-0.1)	7,050 (-9.3)	8,600 (-8.1)	15,650 (-8.6)
가전	7,119 (7.7)	3,716 (1.3)	3,394 (-1.7)	7,110 (-0.1)	3,450 (-6.9)	3,241 (-4.5)	6,701 (-5.8)
정보통신기기	26,475 (-3.2)	12,680 (-2.5)	13,889 (3.1)	26,569 (0.4)	12,885 (1.6)	14,153 (1.9)	27,038 (1.8)
반도체	44,726 (8.6)	23,562 (11.5)	23,463 (-0.6)	47,025 (5.1)	23,026 (-2.3)	23,447 (-0.1)	46,473 (-1.2)
디스플레이	5,199 (-1.1)	2,580 (-5.5)	2,119 (-14.1)	4,699 (-9.6)	1,803 (-30.1)	1,884 (-11.1)	3,687 (-21.5)
이차전지	1,551 (73.7)	808 (8.7)	773 (-4.3)	1,581 (1.9)	819 (1.4)	783 (1.3)	1,602 (1.3)
12대 합계	209,986 (7.1) 〈39.2〉	101,242 (-1.4) 〈40.1〉	103,201 (-3.8) 〈41.1〉	204,444 (-2.6) 〈40.6〉	95,378 (-5.8) 〈40.6〉	97,127 (-5.9) 〈41.1〉	192,515 (-5.8) 〈40.9〉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2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ohsung00@kiet.re.kr | 044-287-3631